탈종교화 "대중 욕구 충족 못한 기성종교 탓"

1월 25일 '탈종교화 대응' 3대종교 특별토론회



윤승용 박수호 박문수 김진호

종교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망은 높아지지만 기성종교들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단 분석이 나왔다. 한국사회 현대적 현상으로 대두된 '탈종교화'가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이 아닌, 그들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제도종교계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1월 25일 안국동 W스테이지서 열린 3대종교 특별토론회 '한국 종교, 탈종교화에 대응할 수 있나'서 발제자들은 2015 인구센서스 종교인구조사결과 무종교인이 56.1%로 종교인구 43.9%를 앞지른 현상을 주목하고, 원인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기조발표를 맡은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와 3대종교 부문 발제를 맡은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박수호 중앙승가대 불교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사회불안 속 국민들의 종교적 갈증을 해결치 못한 기성 제도종교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박문수 가톨릭평론 편집위원장만이 종교 인구 감소의 원인을 '세속화와 영성의 시대로 대변되는 탈 제도적 종교성의 확대'라고 봤다.

먼저 윤승용 이사는 "작금의 종교인구 감소는 종교의식의 세속화나 서구적 탈종교 현상보다 한국사회의 불안과 생존위기로 증대된 종교적 욕구를 수용할 수 없는 기성 제도종교의 문제"라고 평가했다.

윤 이사는 "신앙대중의 삶이 팍팍하게 되고, 그들의 사회적 보호막이 점차 해제되면서 종교적 피난처를 찾는데 골몰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이 같은 불안정한 삶이 종교의 욕구를 증대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안식처를 제공하는 종교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에 신앙대중들은 기성종교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5 종교인구조사결과
무종교인 56.1%로 나타나
종교인구 앞지른 현상 분석

"종교적 갈증 높아지지만
기성 제도종교 역량 부족"

윤 이사는 이에 따라 한국인들이 기성종교를 거부하고 대체종교, 즉 '영성종교와 근본주의'란 새 종교지형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교인구 감소시대에는 산토끼를 찾아 나설 것이 아니라 집토끼를 잘 관리하는 전략이 더 주효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진호 연구실장(개신교)은 명상 및 자기계발 프로그램들이 성행하는 현상, 필립 코틀러가 '산업사회의 마켓1.0'과 '소비사회의 마켓 2.0'을 지나 '영성사회의 마켓 3.0' 시대에 도래했다고 예언한 점 등을 언급한 뒤 "오늘의 세계는 곳곳에서 더 종교적"이라며 "전통적 종교체제들이 대표했던 종교의 영토를 넘어서 모든 존재의 장소가 종교 혹은 종교적인 것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문제는 기성종교들은 그러한 '종교 너머의 종교성'에 대해 닫혀있단 사실이다. 그리고 과거에 구축·경직된 언술들을 반복 주장한다. 즉 사회제도의 변화의 따른 새로운 종교성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수호 연구위원(불교)도 불자 감소의 원인에 대해 불교계가 불자들의 종교적·개인적 욕구들을 제대로 충족해주지 못한 결과라고 내다봤다.

박 연구위원은 "우선 불자들의 종교적 욕구가 무엇인지, 그것이 언제 형성되는지 검토해야한다. 사람들이 종교에 귀의하는 근본적 이유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함"이라면서 불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방법으로 '서원(誓願)불교'를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그동안 한국불교는 전근대성을 극복한다는 명분 아래 기복불교를 비판하고, 지식불교·수행불교·참여불교·작복불교 등 다양한 방향성을 모색했다. 하지만 구복에 대한 불자들의 욕구 해소를 위해 서원불교를 지향해야한다"며 "서원불교는 구복과 성불이란 종교적 욕구를 결합한 것이다. 불자들은 서원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함과 동시에 성불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문수 편집위원장은 "제도종교 역할 여하에 따라 종교인구가 증가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며 "종교인구의 급격한 감소 원인을 세속화와 영성의 시대로 대변되는 '탈 제도적 종교성의 확대'라고 생각한다. 경제난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 젊은 연령대 뿐 아니라 고령층에서도 감소했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한편 이번 3대종교 특별토론회는 신대승네트워크, 우리신학연구소,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신대승네트워크는 지난 1월 12일에도 '2015 인구센서스의 종교인구 변동이 한국불교에 던지는 함의-불교인구, 하락의 사이클에 들어갔나' 특별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설립 종령 공포

1월 25일, 출판사 종령 폐지

지난해 11월 '조계종출판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조계종이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을 1월 25일 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의 수익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조계종 사업부는 △건축설계사무소 운영 △사찰 연계형 전세버스 사업 △불교 공제조합 운영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포된 종령에 따르면 사업지주회사는 △출판 및 서적 도소매 △기획물 제작 대행업 △미디어업 △유통업 △프랜차이즈업 △부동산 중개 및 임대업 등 다방면서 직접 사업하거나 자회사 운용으로 수행한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은 주주총회서 선임하고,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재정현황을 고려해 주주총회 결의로 종단에 배당한다. 배당금 규모는 총무원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특히 전문경영인을 대표이사 권한대행자로 선임할 수 있어 조계종이 각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포교원 인성교육계발 프로그램 공모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1월 24일 '2017년 포교원 인증 인성교육계발 프로그램' 공모를 공지했다. 올해 공모는 기획 '차(茶)를 통한 인성교육'과 일반 분야 등 2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청소년 마음등불' 사업 참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접수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로 심사는 3월 17일 진행 예정이다. 접수서류는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다운 가능하다.

한편, '인성교육 계발·인증위원회'는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을 위원장으로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 명상상담연구원장 인경 스님, 포교원·교육원 부실장 스님, 김영래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교수, 박병기 한국교육대 윤리교육과 교수, 박선형 동국대 평생교육원장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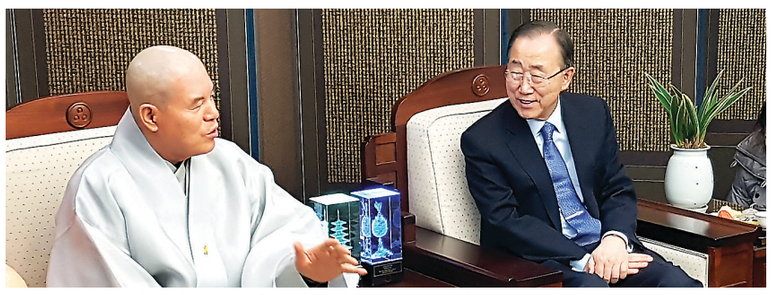


"봄이 온 줄 알았건만…" 통도사 영각 앞 봄의 전령인 홍매화가 한겨울에 고개를 내밀었다. 허나 불래춘(不來春)이다. 삭막하기만한 겨울, 탐스런 붉은 빛이 반갑기 그지없지만 금세 사그라질까 걱정 앞선다. 그래도 수백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봄소식 전한 너이기에 아름다운 이별도 고맙다.

양산 통도사=하성미 기자

대선후보들, 잇따라 조계종 행보

문재인·반기문·유승민, 불교계 지혜 구해



자승 스님과 반기문 前UN사무총장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잇따라 조계종을 예방, 불교계의 지혜를 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반기문 前UN사무총장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서는 차별금지에 대한 서로의 견해를 주고받으며, 정부와 종교계가 국민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함에 공감했다.

자승 스님은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지만 일부 종교지도자들이 선교활동에 방해가 된다며 국회의원들에게 연락해 법안이 무산됐다. 하지만 인권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평등을 명시한 헌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반 총장님께서 많은 경험을 하셨으니 꼭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반 前총장은 차별금지는 UN헌장의 기본이기도 하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차별 받으면 안 된다는 대원칙"이라며 "UN사무총장으로 일하며 세계 73억 인구가 모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화답했다.

이어 23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만난 자승 스님은 "국민과 소통하고 교감하며 이심전심 되는 후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승민 의원은 "제일 어려운 국민을 위해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오랫동안 갖고 있던 생각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보수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국민 원하는 개혁을 위해 보수정치가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前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에 앞서 19일 조계종을 예방한 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참석해 정권교체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국민의 마음이 어둠을 헤쳐 나가는 하늘길이라 여기겠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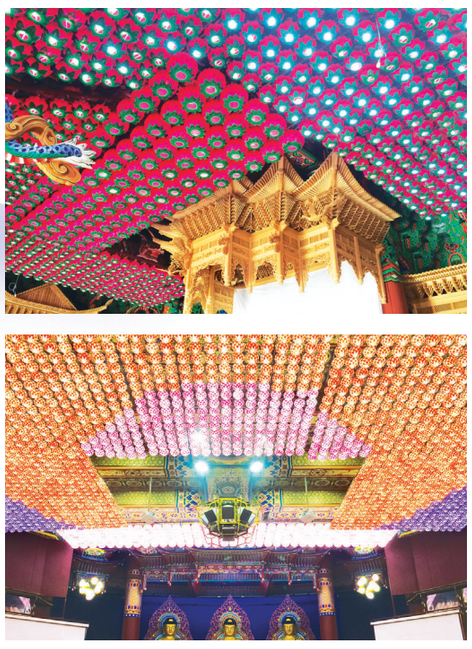
연등전문기업 대광불교

지혜의 등·자비의 등
연등을 밝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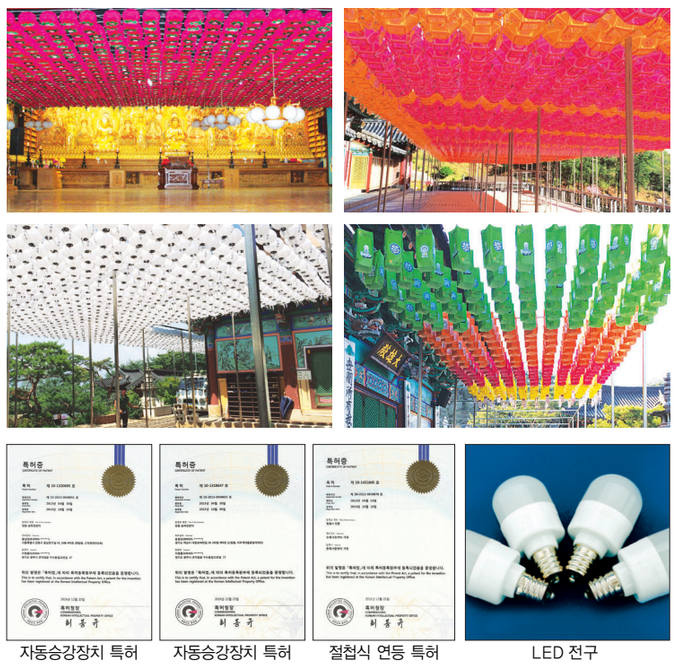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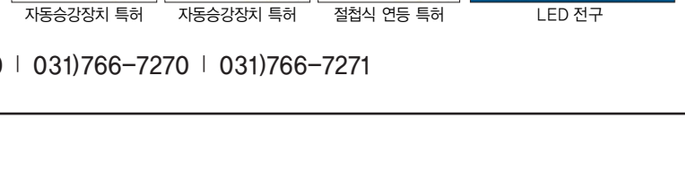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6-7270 | 031)766-7271